울곡의 마음공부

마음먹기

작심삼일과 초지일관

필자가 청년 시절 친한 친구랑 밤새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하는 다짐은 '다시는 술을 마시면 성을 갈겠다.'는 생각이었다.

그 다짐을 실행했다면 필자의 성은 아마도 '이씨'가 아닌 '김씨'나 '박씨' 또 그 무엇이 되었을 것이다. 그 뒤에도 이런 일이 가끔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다짐은 언제나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마음먹기는 쉽지만 실행이 어려웠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몸이 술을 받아주지 않으니 요즘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이제 와서 몸이 예전에 마음먹었던 일을 실천하게 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드디어 숙취로부터 해방되었다.

반면 필자가 장래 무엇이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마음먹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철학자가 그것이었다. 대다수가 가난했던 당시의 농촌 출신 학생들은 회사원·공무원·교사 등을 선호했는데, 철학 연

구를 평생의 할 일로 마음먹은 일 그 자체가 일종의 비현실적인 사치였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초지일관 어려운 형편과 방해물을 모두 극복하고 끝내 성취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찍부터 무엇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일 자체가 큰 작용을 했다. 물론 그렇게 마음먹은 동기도 뚜렷하지만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다.

마음먹기의 사전적 뜻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율곡 선생은 이 마음먹기를 '뜻을 세운다'는 입지立志로 이름 붙이고, 여기서 말하는 뜻[志]이란 '마음이 가는 곳'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뜻을 세운다는 말은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표 설정이다. 그래서 선생은 "배움에 있어서 뜻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없다. 뜻을 세우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이제껏 없었다."라고 말하여, 목표를 세우는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선생이 여기서 말하는 뜻은 장기적인 원대한 꿈과 같은 것으로, 장차 배워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배움을 시작할 때 뜻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선생의 이 말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절실하지만, 장년기와 노년기에 어떤 삶을 살지 목표를 정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인 금주·금연·다이어트·운동 등의 작은 일에도 응용할 수 있다. 크든 작든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일이 그 출발이다. 그래서 선생은 "배우는 이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바람직한 인간되기

앞에서 마음먹는 일에는 장기적인 일과 단기적인 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것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성인들의 경우는 그보다 짧지만 다소 긴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다. 어느 것이든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아무튼 누구나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싫든 좋든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그마저도 미래는 인공 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 발달로 일자리가 자주 변하여 두세 개의 직업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러니 굳이 딱 정해진 하나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어야 할까? 차라리 직업과 상관없이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도전하며 꿋꿋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공부를 해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떤 일에 마음먹어야 할지 선생의 제안을 소개해 본다. 선생은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것에 뜻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생뚱맞고 크게 웃을 일이 분명하지만, 선생은 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 그 근거로 옛날의 성인이나 현인도 나와 똑같이 하늘의 이치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부를 통해 그 이치를 잘 발휘하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 타종교로 확장하면 내가 부처도 예수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불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자칭 부처나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

야 하니까 바로 성인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비종교인들에게 그것도 너무 거창하다면 잠시 '바람직한 인간'이 되는 정도로 생각해 보자.

바람직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직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직업이란 그저 먹고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미래에 어떤 것인지도 모를 직업을 위해 이런 큰 뜻을 세운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직업이 귀하거나 천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법률가가 되어도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고, 길에서 종이박스를 줍더라도 잘하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직업은 상자와 같아 보물이 들어 있으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보물 상자이지만, 오물이 들어 있으면 아무리 귀하에 보여도 오물 상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각자 따르는 철학이나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보아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와 자연에 폐를 끼치지 않고 보탬이 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진리를 탐구하거나 선을 추구하거나 아름다움을 찾는 일 또는 사회를 위한 헌신·봉사, 하다못해 남을 즐겁게 해주는 일 등이 그런 일일 것이다. 그런 일을 직업을 통해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직업과 관계없이 추구할 수도 있다. 성인과 현인도 크든 작든 이런 일에 힘쓴 분들이다. 그러니 직업이 없는 은퇴한 노인들도 이런 일에 마음을 먹을 수 있다. 결국 선생의 논리대로라면 누구든 공부를 시작할 때 바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뜻을 세워야 한다.

소박한 욕망과 꿈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성인이나 현인도 나와 똑같이 하늘의 이치를 부여받았다'는 선생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선생은 "성인이 우리에게 거짓말 할 리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물론 과거의 성인이 거짓말은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학문의 진보에 따라 성인도 몰랐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곧 인간이 하늘로부터 착한 성품을 부여받았다는 성리학의 전제가 미심쩍다고 말이다.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이다. 그래서 누구나 성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겠다.

사실 그 문제보다 현대의 젊은이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성인에 전혀 관심이 없다. 어쩌면 각자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는 성인 자체가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성인군자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장래 뭐가 되든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아리따운 아내나 잘 생긴 남편을 만나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들의 꿈이 아닌가? 오래전 어떤 가수가 부른 가요의 노랫말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꿈 말이다. 인간의 짜릿한 행복은 육체적 만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이다. 물론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출세와 부귀영화를 꿈꾸어야 하고, 또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지만 결코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걸 두고 모두가 경쟁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는 법도 없다. 역사상 그 많은 부자나 영웅호걸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떤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쾌락으로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인생은 그것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이다.

인생의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은 이런 주장에 시큰둥하겠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이런 욕망을 갖는다고 크게 탓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이 아직도 그런 미련을 못 버렸다면 인생을 헛살았다고 핀잔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사실 그런 부귀영화를 추구해 봐야 그림의 떡일 뿐이니, 헛심 부리지 말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도 도덕적 엄격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인생 만사를 금욕적인 도덕의 잣대로만 보면 피곤하다. 현상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란 각자의 이익을 두고 판단하는 상대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규범에 반하는 살인·상해·강간·사기·절도·패륜·중상모략·성추행 등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아닌 한, 굳이 전통 윤리대로 살 필요는 없다. 다만 선생이 제안하는 마음공부는 오늘과 미래의 나를 위해 수양의 목표와 방법과 기술로서 실험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인생의 목표를 성인과 현인이 되고자 하더라

도, 그 일이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 더 욕심을 부린다면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길을 실천하고 제시하면 되지, 전통의 가치만을 따르는 엄격한 도덕군자가 되는 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그가 밥 굶지 않을 정도의 수입과 허름하지만 비와 추위를 피할 집과 어디든 가고 싶을 때 선뜻 떠날 수 있는 고물 자동차 한 대의 욕망이라면 비난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참에 노후에 이런 소박한 욕망을 꿈꾼 선비를 소개하고 싶다. 조선 중기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1485~1541)이 어떤 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보인다.

> 노후에 없어서 안 될 것은 서적 한 시렁, 거문고 하나, 친구 한 사람, 신 한 켤레, 잠을 청할 베개 하나, 바람 통할 창문 하나, 햇볕 쪼일 마루 하나, 차 달일 화로 하나, 늙은 몸을 부축할 지팡이 하나, 봄 경치를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뿐이오. 이 열 가지는 비록 번거롭기는 하지만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오. 노후의 삶을 보내는 데에 있어 이 외에 더 무엇을 구하겠소?

당신이 중년에 접어든 분이라면 노후에 이런 삶을 통하여 인생의 아름다운 도리를 추구하고, 그것과 함께 즐기는 일에 뜻을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아무튼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 일은 마치 자동차로 모르는 길

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다. 중간에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공사 중이라면 돌아갈 수도 있고, 연료가 떨어져 주유소에 들를 수도 있지만 끝내 목적지로 안내한다. 무엇을 할지 뜻을 세운다는 것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 당신은 인생이나 노년의 삶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 적어도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나쁜 일은 안 할 것이다. 이 점은 선생도 주희의 말을 인용하여 "그 마음이 진실로 사람답게 사는 데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목표가 정해지면 정신을 집중할 수 있으므로, 다시 주희의 그 유명한 말을 인용하여 "정신을 집중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바로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 그것이다. 이와 유사한 우리 속담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지극한 성실로 노력하면 하늘을 감동시켜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니,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 마음먹기의 효과가 이렇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케 세라 세라

흔히 어떤 일을 고민하다가 술 취해서 체념하거나 또는 맨 정신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일 때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케 세라 세라다!"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다. 적어도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속하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있겠다. '될 대로

돼라'의 뜻으로 쓰였다.

사실 이 말은 팝송 가사에 등장한다. 우리말도 아닌 그것이 마치 우리말처럼 쓰인 것은 그런 노래의 유행 때문이었다. 이 노래는 1956년에 개봉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나는 비밀을 안다'라는 영화에 삽입되면서 크게 히트했다고 전한다. 그 가사는 이렇다.

> 내가 소녀이던 무렵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하고.
> 그러자 어머니는 대답했어요.
> "케 세라 세라.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란다."라고.
> 연인도 같은 대답을 하고,
> 지금 나도 아이한테 같은 대답을 들려주고 있지요.

여기서 '케 세라 세라'는 '될 대로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기에 영화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어떤 사회적 환경과 배경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근본주의 신학을 따르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매우 신앙적인 표현이다. 곧 하느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두었다는 칼뱅Calvin, Jean(1509~1564)의 '예정조화설'을 믿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된다는 말이니까.

만약 나의 이 가정이 맞는다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돼라'는 식의 번역은 오류가 될 수 있다. 또 내버려 두어도 자연히 어떻게든 결정된다는 관점도 율곡 선생의 입지와 거리가 있다. 한국식 '케 세라 세

라'는 더욱 그러하다.

선생은 이렇게 뜻을 세우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맹자』에 등장하는 '자포자기自暴自棄'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자포'는 스스로 해치는 것이며 '자기'는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선생은 뜻을 세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뜻을 세우지 못하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 새겨들을 만하다.

첫째,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곧 성현들이 후학들에게 밝게 알려 준 것이 명백하고도 절실하여, 그 말을 따라 순서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현의 말이 사람들을 꾀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하고, 성현의 글을 음미만 할 뿐 몸으로 실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행위를 일삼는다고 한다.

둘째,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곧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자기 자질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 뒤로 물러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나아가면 성인과 현인도 되지만 뒤로 물러나면 어리석고 못난 자가 되니, 이 모두가 자기가 하는 것임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

셋째, 용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곧 평소 습관대로 안주해 버리고 분발하지 않아서, 어제 한 일을 오늘 개혁하기를 어렵게 여기고, 오늘 좋아하는 일을 내일 고치기를 꺼린다고 한다. 이같이 하던 대로 답습하면서 한 발 나아가면 서른 발 후퇴한다고 한다.

선생이 말하는 성현을 접근하기 어려운한 근엄한 도덕군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수양하며 각종 탐욕에 집착하지 않고 양심적이고 교양이 있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 정도로 여긴다면 결코 못될 것도 아니다.